2021.09.06. NO.682

JP베트남 뉴스레터

지금 베트남 기업들은… SSI증권

SSI증권(Saigon Securities Inc.)은 1999년 12월, 6억 VND의 초기 정관자본금을 가지고 호찌민 시에 본사를 출범하였다. 이후 2001년 투자자문, 중개업, 자기자본직접투자(PI) 및 증권예탁업무 총 4개 분야에서 자본금 20억 VND로 성장, 2002년 하노이 지점 개설을 거쳐 2005년에는 자산관리와 인수업무까지 추가하며 업무영역과 자산규모를 가리지 않고 꾸준한 성장을 구가해왔다. 2006년에는 호찌민 주식 시장에 상장되며 대표지수인 VN30 구성종목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으며, 현재는 하이퐁, 나트랑, 껀터 등 베트남 주요 거점 도시를 아우르는 베트남 최대증권사로 성장했다.

도이머이(Doi moi) 정책 이후의 꾸준한 경제성장률은 SSI증권이 공격적인 신규투자를 지속해 나가는 배경이 되었다. 올해만 해도 대만계 은행으로부터 베트남 증권사 가운데 해외조달 최대 규모인 1억 달러를 차입하며 신용대출 등 금융지원서비스 전반에 대한 투자에 앞장서고 있는 모양새다. 더불어 금리인하라는 호재 속에서 SSI 증권은 지난해 세전이익 1조 5600억 VND(전년 대비 54.4% 증가)라는 역대급 실적을 달성, 올해에는 매출과 세전이익 각각에서 5조 2600억, 1조9000억 VND라는 업계 최고치 목표를 세우는 등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코로나발(發) 전세계 주식시장의 활황에 힘입어 베트남 역시 투자인구의 증가가 가파르다. '처음 시작한 사람'이라는 뜻의 'F0'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신규계좌개설이 급증하며 SSI증권의 성장을 더욱 견인하고 있는 것이다. SSI증권 응우옌두이훙 회장은 "올해 증시는 베트남 정부와 중앙은행의 통화 및 재정 정책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신규 투자자 유입과 ETF 흐름이 베트남 증시 성장을 돕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출처: KVINA(링크), SSI증권(링크)

베트남증시 4거래일 연속 상승

베트남증시 VN지수가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9월 1일 기준 1334.65p로 장을 마감했다. 지난 7월 19일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경기 정상화에 대한 우려로 저점을 찍은 이후 회복하여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와는 달리 외국인 투자자들은 6거래일 연속 순매도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은 여전한 변수다. 한편 베트남증시는 4일간의 독립기념일 연휴 이후 9월 6일 다시 개장한다.

출처: 한국경제TV(링크)

베트남 SSI증권, 커버드워런트 증권 발행

베트남 SSI증권이 베트남 우량주 모임인 VN30의 지수 종목들로 구성된 커버드워런트(Covered Warrants, CW) 증권을 발행한다. CW증권이란 특정 대상물을 사전에 정한 미래시기에 정한 가격으로 '살 권리(콜)' 혹은 '팔 권리(풋)'를 갖는 증권을 말한다. 신주인수권증권(Company Warrant)이 발행회사가 발행하는 워런트인데 반해, 제3자(주로 은행 또는 증권사)가 사전에 설정한 임의적 기초자산을 토대로 발행된다는 점에서 구분되며, 발행자는 보유주식을 담보로 주식워런트를 발행함으로써 보유주식의 이용가치를 높이고 위험분산을 꾀할 수 있다. 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의무가 아닌 권리라는 점에서 제한된 투자위험을 담보한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지난 2019년 6월말 베트남증시에 첫 선을 보인 뒤 2년 째를 맞이하는 CW증권은 풍부한 유동성 공급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순항 중이다. 출처: KVINA(링크)

주요기사

베트남, 해외투자 크게 늘어나

베트남의 해외투자액이 8월까지 5억 7500만 달러에 달하며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기획투자부에 따르면 이 같은 수치는 작년 동기대비 74.1% 증가한 것이며, 이에 따른 누적 해외투자는 1428개 프로젝트에 총 218억 달러에 이른다. 하지만 내실을 들여다보면 이 중 빈그룹의 투자가 4억 5000만 달러에 달하며 지나친 편중을 보이고 있어 해외시장진출 기업의 다각화를 위해 개선점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출처: 인사이드비나(링크)

올해 상반기 무역적자 37억 USD

베트남이 2021년 올해 상반기 무역에서 37억 1천만 USD 상당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치는 수입액이 작년 동기대비 33.8% 증가한 2160억 USD를 기록한 반면, 수출액은 21.5% 증가한 2120억 USD를 기록한 결과라고 통계청은 밝혔다. 수입국가 순으로는 중국, 한국, 아세안이, 수출국가 순으로는 미국, 중국, EU 및 아세안이 뒤를 이었다. 한편 산업무역부는 앞으로 적극적인 FTA 추진을 통해 새로운 시장개척에 활력을 불어넣어 코로나로부터 경제회복의 기제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출처: VietnamPlus(링크)

제당협회, 태국산 설탕 반덤핑 회피 의혹 제기

지난 달 25일, 베트남 제당협회(VSSA)는 태국산 설탕에 부과된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를 우회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산업무역부에 관련 조사를 요청했다.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작년 9월부터 반덤핑조사에 착수하여 올해 2월 예비조사를 거쳐 7월 16일부터 향후 5년간 42.99%의 반덤핑 관세 및 4.65%의 상계관세 부과를 발표한 바 있다. 실제로 작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아세안 자유무역협정(ATIGA)으로 인해 베트남에 수입되는 정제 설탕과 백설탕의 관세가 기존 80%에서 5%로 큰 폭 하락하며, 베트남 제당공장은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로 줄어든 상태이다.

베트남 제당협회가 이번 조사를 요청한 배경에는 태국산 설탕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그리고 미얀마를 포함한 다른 아세안 국가들을 통해 우회 수출되고 있다는 정황에 근거한 것이다. 실제로 이들 5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설탕양은 작년 동기 대비 10배나 증가한 상황이다. VSSA는 이들 국가의 설탕 산업이 경쟁력 차원에서 아무런 진전이 없었음에도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출처: 인사이드비나(링크), VietnamBiz(링크), 한국경제TV(링크)

금융

VNBA, 국제카드회사에 수수료 인하 요구

베트남은행협회(VNBA)가 코로나 4차 대유행을 이유로 Visa와 Mastercard 두 국제카드회사에 수수료를 최소 50% 가까이 인하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올해 상반기 카드결제액이 코로나 발생 전인 2019년 대비 23%나 감소한 반면, 여전히 3~4종의 막대한 수수료 부과하고 있어 국내 전업카드사에 비해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수수료의 중복부과를 막기 위해서 수수료 부과 체계의 간소화 역시 함께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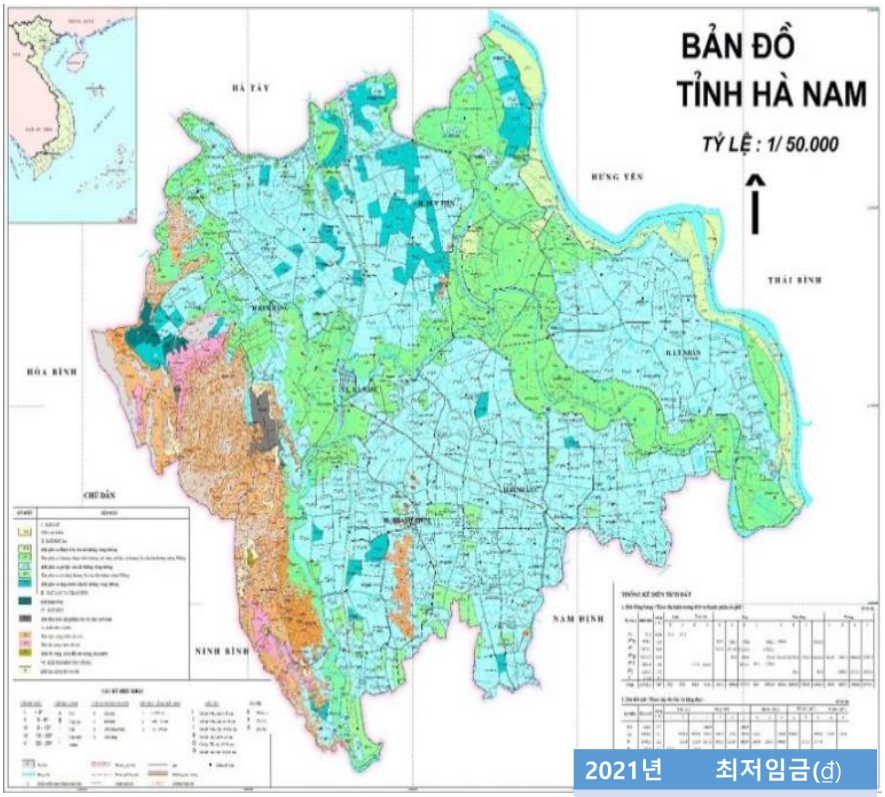
출처: Vietnamnews(링크)

Techcombank, ESOP실시

베트남 테크콤은행(Techcombank)이 직원들에게 600만 주 이상(전체의 0.1714%)의 ESOP(우리사주신탁제도)를 실행한다. ESOP란 자사주를 종업원들에게 나눠주는 제도로서 보통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고무시킬 목적으로 실행된다. 시기는 9월 중으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1주당 발행가는 1만 VND로, 발행 후 1년간 매매 등의 이전이 금지된다. 테크콤은행은 작년 11월에도 ESOP로 470만 주를 발행한 바 있다.

출처: VietnamBiz(링크)

하남 성



2021년	최저임금(₫)
Region 1	4,420,000
Region 2	3,920,000
Region 3	3,430,000
Region 4	3,070,000

주이띠엔, 낌방 현 Region 3
나머지 지역 Region 4

명칭: Hà Nam
성도: 하남 성
교통: 1A 국도를 비롯하여 21A, 21B, 38번 국도가 지나가는 교통 요충지/ 노이 바이 국제공항까지 약 80km
GRDP: 20억 USD (2018)
연간성장률: 13.9% (2016)
홍강 삼각주 지방에 위치한 지역으로 수도 하노이에서 남쪽으로 약 50km, 하이퐁 항구로부터 2시간 거리에 위치한다. 인구는 약 82만 명, 면적은 약 860km2이다. 베트남 북부 주요 경제 지역과 인접하고 있다는 장점 외에도 하남성 인민위원회가 KOTRA와 함께 투자설명회를 따로 개최했을 정도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의지 및 저렴한 인건비 등의 장점을 지닌 매력적인 투자처이다. 주요 산업으로는 공단·건설업, 농수산업, 가공 및 제조 등이 있으며 2019년부터 대한민국 하남시와 우호도시를 체결하며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출처: 하남시(링크), AseanExpress(링크)

Dong Van 제 2 공단

면적: 220 ha
입지: 하노이 45km/ 노이 바이 공항 70km
전기: 110/22 KV
비용:

- 임대료: (토지) 80 USD/㎡ (인프라) 2021년까지 면제(관리비 0.35 USD/㎡/연)
- 전기료: 공급시기의 EVN 관세에 따름
- 물 사용료: 0.5 USD/㎥
- 폐수 처리: 0.15 USD/㎥ (Level 1), 0.45 USD/㎥ (Level 2)

출처: Kland(링크)

Chau Son 공단

면적:377 ha
입지: 하노이 58km/ 노이 바이 공항 80km
전기: 110/22 KV
비용:

- 임대료(토지 및 인프라 포함): 75 - 82 USD/㎡ (관리비 0.3 USD/㎡/연)
- 전기료: Peak hours 0.13 USD/kWh + Normal hours 0.07 USD/kWh + Idle hours 0.05 USD/kWh
- 물 사용료: 0.49 USD/㎥
- 폐수 처리: 0.41 USD/㎥

출처: Kland(링크)

세아스틸비나(SSV)

공급이 수요 못 따라가…철강업계 호황 지속

철강업계가 유례없는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작년 코로나로 인한 생산량 둔화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불러온 철광석 가격 급등 등 각종 어려움에 직면했던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원자재인 철광석 가격의 고공행진 속에서 이루어진 결과라는데 있다. 미국의 對중국 경제부문 압박을 예상한 중국의 '철광석 싹쓸이'와 코로나발(發) 세계 최대 철광석 생산국인 브라질의 철광석 채굴량 감소로 철광석뿐만 아니라 고철(철 스크랩) 가격까지 상승한 것이다. 그럼에도 베트남 철강업계 1위인 호아팟 그룹은 작년 대비 42% 증가한 철강생산량을, 업계 2위인 호아센 그룹은 올해 7월에만 작년 동기 대비 최대 124% 증가한 세후 이익이 점쳐지는 등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은 국내 매출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호아팟 그룹과 전체 매출의 약 35%가 해외에서 발생하는 호아센 그룹을 불문하고 일어나는 일이라는 점에서 더욱 고무적이다. 재정부는 건설업 등 철강을 원자재로 사용하는 업계에 부담이 가중될 것을 염려해 현행 15~25%의 수입관세를 10~15%로 인하하고, 수출관세를 무관세에서 5%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제출했으나, 국내·외를 불문하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여건상 당분간 이 같은 흐름은 지속될 전망이다. 출처: VietnamNews(링크), 경북매일(링크)

세아스틸비나, 美 관세폭탄 면제

세아스틸비나(SSV)가 미국의 관세폭탄을 피하게 됐다. 지난달 2일 반덤핑조사 기관인 미국 상무부(DOC)로부터 3차 베트남 OCTG (석유와 가스 생산에 사용되는 관)에 대한 행정 검토에서 0% 관세를 부과받은 것이다. 미국의 반덤핑명령은 국제무역관리청(ITA)과 상무부(DOC)의 교차조사 과정을 거치며 진행되는데, 중국과 함께 비시장경제지위국에 해당하는 베트남의 경우 보통의 시장경제지위국에 비해 보다 엄격한 조사를 받게 된다. 또한 한 번 내려진 반덤핑명령은 철회되기 전까지 효력이 있고 이후의 연례 재심은 일 년에 한 번밖에 요청할 수 없다는 점, SSV와는 달리 다른 베트남 기업에는 111.47%에 달하는 반덤핑 비율이 결정되었다는 점 등을 비추어볼 때 향후 반사이익까지 기대할 수 있어 이번 결정은 SSV의 성장에 더욱 큰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출처: 더구루(링크), KITA(링크)

베트남 진출 연대기

세아제강지주의 100% 자회사인 세아스틸비나(SSV)는 강관(내부에 공간이 있는 봉 형태 철강제품)제조회사로 1995 년 베트남 남부 동나이성에 제 1 공장을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베트남에 진출하였다. 베트남 내수 철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뿐 아니라 동남아, 미국 시장으로의 진출에 있어 교두보 역할을 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2019 년에는 꾸준한 베트남 건설시장에의 성장에 힘입어 약 450 억 원을 추가로 들여 제 2 공장을 설립한 바 있다. 이로써 세아제강지주가 1993 년 베트남 철강회사 'VN 스틸'과 합작하여 베트남 북부인 하이퐁 지역에 설립한 베트남 스틸 파이프, 그리고 SSV 제 1, 2 공장까지 합하여 생산능력 총 37 만 톤으로 베트남 최대의 강관회사로 발돋움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베트남 북부와 남부를 아우르는 생산거점을 확보하게 되면서 북부에 비해 도로 등 인프라가 부족한 남부로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코로나발(發) 경기침체로부터의 회복, 남부 종단 고속도로 건설, 항만 시설 확장 등 인프라 건설 속도를 높이겠다는 베트남 정부의 확고한 의지 또한 세아스틸비나(SSV)의 밝은 미래를 가늠하게 한다. 출처: 매일경제(링크), KIEP(링크), 스틸프라이스(링크)

본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dhlim@jplawvn.com/+82 10 6796 8845

법무법인 제이피의 뉴스레터는 베트남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저희 사무소의 법률 자문 또는 공식적 견해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수신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jplaw@jplaws.com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